2015년 지하철 안전하게 이용하기 교육 결과

□. 관련근거

가. 지하철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전교육 협조 요청(기계처-92. '15.1.9)

나. 2015년 도시철도 승강기 안전하게 이용하기 교육시행(안),(사장 - 34,'15.1.23)

다. 2015년 상반기 지하철 안전하게 이용하기 교육결과 송부 (기술지원단-9066.2015.07.03)

□. 교육내용

가. 지하철 상식

나. 지하철 승강설비 등 안전사고 현황 및 지하철 에티켓

다. 지하철 승강설비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 안전수칙

라. 지하철 화재발생시 신고 방법 및 신속한 대피방법

마. 퀴즈 풀기

바. 질의응답 및 마무리

□. 교육 시행 결과 : 85개교 29,044명

가. 초등학교 : 미래 초등학교등 65개교 18,985명

나. 중학교 : 정의여자중학교등 10개교 5,538명

다. 고등학교 : 재현고등학교 등 10개교 4,521명

□. 언론보도 현황

가. 보도일시 : 2015년 12월 4일(금)

나. 보도매체

- 헤럴드경제 등 13개 언론사
- TBS(교통방송TV)

다. 보도내용 : 『찾아가는 지하철 안전교육』진행현황 및 인터뷰

- 헤럴드 경제 등 보도 내용

[헤럴드경제=최원혁 기자] 지하철 5~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올해 2월부터 초·중·고등학교 대상 '찾아가는 지하철 안전교육'을 실시한 결과, 총 85개 학교의 2만 9044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.

구로구 미래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65곳(1만 8985명), 도봉구 정의여자중학교 등 중학교 10곳(5538명), 노원구 재현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10곳(4521명)이 참여했다.

지하철 안전교육은 5~8호선 지하철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 공사가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중 가장 많은 1697대의 승강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,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과 손잡고 서울시내 초·중·고등학교에 안전 방문교육을 홍보했는데, 한 달 만에 30곳이 넘는 학교가 신청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.

교육은 참여 신청이 접수되면 공사 직원이 학교에 직접 방문한 후 상황에 맞춰 교내 TV방송시스템 이용, 강당 집합교육, 교실 방문교육 등으로 진행됐다.

승강기 안전이용수칙과 사고사례, 지하철역·전동차에 설치된 안전장비 이용방법과 화재시 대피요령 등 비상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주를 이뤘고 이와 함께 우측통행, 내리고 난 뒤 타기 등 지하철 에티켓에 대해서도 다뤘다.

도시철도공사는 학교에서의 호응에 힘입어 향후 대상을 넓혀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"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"며 "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눔으로써 교육내용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

choigo@heraldcorp.com

- tbs(교통방송TV)보도내용

김지수 기자 tbs3@naver.com ㅣ 기사입력 2015- 12- 04

찾아가는 지하철 안전교육

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지만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특히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.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서울의초·중·고등학교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올 한 해만 3만 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.

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강당. 찾아가는 지하철 안전교육'이 한창입니다.
강의를 시작하기 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지하철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.

교실에서도 TV를 통해 강당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보며 전교생이 지하철의 안전에 대해 배웁니다.

(인터뷰) 서정대 부장 /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
"'청소년이 안전해야 미래가 안전하다.'는 신념으로 청소년을 교육시킴으로써 친구 간 가족 간 전달을 통한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, 이 교육은 5~8호선 지하철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입니다."

승강기 안전이용수칙과 사고사례, 무심코 지나치는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의 안전시설을 확인해보고 사용하는 요령까지 비상시에 필요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.

또 지하철에서 사람이 내리고 난 뒤에 타거나 우측통행 같은 지하철 예절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.

(인터뷰) 이수연 /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
"저도 지하철을 매일 타고 다니는데, 영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다시 안전교육을 받을 것 같아서 재미있고 좋았어요."

올해 2월부터 서울시내 초·중·고등학교를 대상으로'찾아가는 지하철 안전교육'을 통해 총 85개 학교 29,044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습니다.

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하철 안전 교육을 확대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tbs 김지수입니다.

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@naver.com
copyright© tbs. 무단전재 &재배포 금지

□. 교육진행 사진

교육진행 사진		